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첫 정례협의회' 열어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5.11 20:42

민주노동당-민주노총 2008년 1차 정례협의회...사회공공성 강화투쟁,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민주노총 6말7초 투쟁-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에 상호 적극적 역할 다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한층 강화해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을 비롯한 반 이명박 정권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나가기로 했다.

총연맹+민주노동당 1차 정례협의회 '진보진영 총단결 모색'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9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2008년 1차 정례협의회를 갖고 이명박 정권 일방적 독주로 인해 서민 삶이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 정세를 돌아보고 양 조직 소통구조를 강화해 진보진영 총 단결을 모색해나가자고 결의했다.

양 조직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 독주에 맞서 벌이는 사회공공투쟁을 비롯 6말7초 총력투쟁을 적극 엄호 지원하기로 하고 ▲5월15일 장관고시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저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대선과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 강화발전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당 혁신재창당에 민주노총이 적극 함께하기로 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실무적 논의 틀을 만들어 양 조직 소통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합동수련회를 갖고 양 조직 단결을 통해 진보진영 전체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천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노총과 함께 새출발 다짐

천영세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은 “탈당·분당 사태 속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마음 아파하며 질책하면서도 지난 총선에 최선을 다해 힘을 실어주시고 성과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총연맹 임원·간부를 비롯 민주노총 전체 80만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 뜻을 표하고 “이명박 정권이 노동운동에 칼날을 들이대며 당장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쇠고기문제를 비롯해 사회양극화 심화, 공공성 훼손 등 사회적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의한 민주노총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탈당 분당사태가 생기면서 민주노총 내부조직 일부가 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당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과거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이명박 정권 공공부문 사유화정책에 맞서 6말7초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며 그를 위해 저는 지난해 현장대장정에 이어 요즘도 산별대장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진보진영 총 단결과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과제를 고민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국정 운영기조를 바꾸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면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투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과의 원활한 소통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당혁신-재창당 방안 밝혀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여론동향, 당 현황, 사업기조, 세부사업계획 등 민주노동당 5월 사업계획(초)과, 당 혁신과 재창당 방안에 대해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혁신·재창당 구체적 내용으로 조직혁신, 정치활동 혁신, 미래비전 제시 등 세 가지를 꼽고 △조직 혁신에 있어서 의결기구, 지도체계, 집행체계, 지역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의정지원체계, 할당제도, 당직·공직 선출 방안 △정치활동 혁신 부문에서 전략적 지지층 강화, 대국민 선전활동 혁신, 의정활동 혁신, 민생정치 혁신, 평화통일전략 혁신, 정책정당 실현, e-Party(전자정당) 구현, 당 문화 혁신, 당원 정치의식 고양 △미래비전 제시 관련해 이념과 노선 재정립, 집권전략 제시, 재창당 방안 제시, 21세기 노동전략 마련, 전방위적 연대전략 구사, 당내 민주주의 실현, 대안적 미디어 전략, 당명 개정 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6월7초 파업 포함한 총력투쟁과 함께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 노동현장 광우병쇠고기 퇴출 운동 병행

이어 민주노총도 6월말 7월초 총력투쟁 계획(안)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 계획(안)을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5~6월 정부가 공세를 벌여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화, 연금, 한미FTA 비준 추진,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논의 중인 각 연맹별 6월 7초 관련 투쟁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1단계 기간에 민주노총·산별연맹 주요의제를 가지고 1일 1의제 릴레이 집중공동행동을 벌이고, 2단계 기간에는 파업대오+총회투쟁대오+간부대오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우병 쇠고기 일방협상에 반발해 자발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범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를 위한 노동현장 광우병쇠고기 퇴출 운동(가)'을 펼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올해 첫 정례협의회를 통해 소통구조를 보다 긴밀히 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진보진영 총단결을 선도하며 반 이명박 전선을 강고히 쳐 나가기로 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